

## CKP 한국 진출 1호 회계법인 된다

Posted on 02/25/2014 by 헤럴드경제 in 뉴스, 로컬, 메인 헤드라인 with 0 Comments



CKP회계법인 최기호(오른쪽) 김훈 공동대표가 25일 서울 사무소 개설을 알리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LA와 어바인 등 남가주에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CKP회계법인(Choi, Kim & Park, LLP·대표 최기호)이 한미 FTA발효 이후 외국 회계법인으로는 최초로 한국에 진출하게 됐다.

CKP회계법인측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2년 3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 법무법인들의 한국진출은 상당수에 이르렀지만 미국 회계법인의 한국내 진출은 여러 진입장벽에 묶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 한국에 사무실을 열고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국 사무소 개설의 실무를 맡아 온 CKP회계법인 김 훈 공동대표는 “금융감독기관 등의 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세무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 FTA 합의사항 중 전문서비스 시장 개방 스케줄에 따라 오는 2016년까지는 외국 회계법인이 한국에서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한국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하면 외국세법자문 사무소라는 이름

으로 5명의 외국세법자문사가 등록하되 그 중 3명은 미국세무법인 소속으로 한국내에 연중 180일 이상 체류하여야 한다. 게다가 1단계 개방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미국조세와 국제조세에 국한돼 사실상 한국진출을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 시행 2년만에 CKP회계법인이 한국에 사무실을 오픈, 외국 회계법인 1호로 테이프를 끊는 한편 재외동포 회계법인의 한국 진출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세무서비스만 하기에는 시장성 및 사업성이 없다는 점에서 CKP회계법인의 한국 조기 진출을 비상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CKP 김훈 공동대표는 “한국 시장에서 수행할 프로젝트를 확정해 두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지난 3년여 동안 쟁점이 돼온 미국납세자의 해외자산신고에 대한 컨설팅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납세자수는 3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해외계좌 납세의무 준수법(FATCA)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내 금융기관들이 미국납세자 정보를 미 연방국세청에 자동보고하게 돼 해외 자산에 대한 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훈 파트너는 “미국세법 FBAR(해외금융계좌신고) 위반자들에게 사면·정상화 등을 미연방 국세청(IRS)과 협상을 통해 대행 추진하는 서비스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한국에 거주하는 30여만명의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 가운데 90% 이상이 미국세법에서 요구하는 한국금융자산 및 소득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자산과 소득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미국세청(IRS)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는데 FATCA 시행이 임박해 짐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다. IRS가 위반사항을 먼저 인지하면 막대한 벌과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CKP는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핫이슈인 이전가격컨설팅에 상당한 경험과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기대하고 있다. CKP회계법인 서울사무실의 책임자는 고혁준 이사가 맡게 된다.

## ●CKP회계법인은

CKP는 캘리포니아에 4개 사무실, 중부 알라바마와 조지아 그리고 동부 뉴저지주에 각 1개씩 7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동양계 미국회계법인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파트너 7명에 회계사는 70명이지만 회계감사와 국제조세 등 전문화된 분야 인력이 대부분이어서 한국 회계법인과 비교해보면 300명 정도의 회계법인과 동등한 규모일 것이라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CKP는 미국내 5대(세계 6대) 회계법인인 McGladrey의 멤버쉽으로서 전세계 70여개국에 있는 멤버들과 연합하여 글로벌 기업서비스를 지원하며 또한 소위 빅4로 대변되는 대형회계법인들의 서비스 전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삼성과 LG의 주요 계열사를 비롯,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풀무원 등 300여 한국기업의 미국영업을 돕고 있다.